

2020 사회적 금융 서베이

사회적금융포럼

목 차

I. 조사개요	4
1. 추진 배경 및 조사 목적	4
II. 주요 결과	5
1. 조직 기본정보	5
2. 사회적 금융 현황 정보	9
3. 사회적 가치 측정	19
4. 사회적 금융 시장과 관련된 향후 전망	21
III. 결론	27
1. 주요 함의	27
2. 향후 과제 및 제언	29
부록 1. 서베이 문항	30
부록 2. 사회적 금융 포럼 소개 자료	34

*조사 시기 : 2020년 12월 17일 ~ 2021년 1월 25일

*조사 방식 : 기관별로 사회적 금융 실무 총괄 책임자가 작성한 서베이

*조사 대상 : 사회적 금융 기관 25개사 (포럼 참여기관 24개 중 23개 기관 응답, 포럼 참여기관 외 2개 기관이 추가로 응답)

*조사 내용 : 조직 기본 정보, 사회적 금융 현황 정보,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적 금융시장 관련 향후 전망의 4개 영역에
대하여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 (세부 서베이 문항은 부록 참조)

본 보고서는 사회적 금융 포럼 간사단체인 임팩트스퀘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I. 조사 개요

1. 추진 배경 및 조사 목적

- 사회적 금융에 대한 주목도와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내 사회적 금융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24개의 조직이 모인 국내 최대의 사회적 금융 협력 네트워크인 ‘사회적 금융 포럼(이하 ‘본 포럼’)'이 2020년 공식 출범하였음.
- 본 포럼은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해당 논의와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금융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제안을 담아내고자 함. 이러한 목적하에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사회적 금융 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인 ‘2020 사회적 금융 서베이(이하 ‘본 조사’)'를 수행하였음.
- 특히 본 조사는 민간기관들이 참여하여 국내 사회적 금융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파트너들에게 생태계 현황 정보와 향후 동향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자 함. 나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와 관련 정책에 대한 함의 및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II.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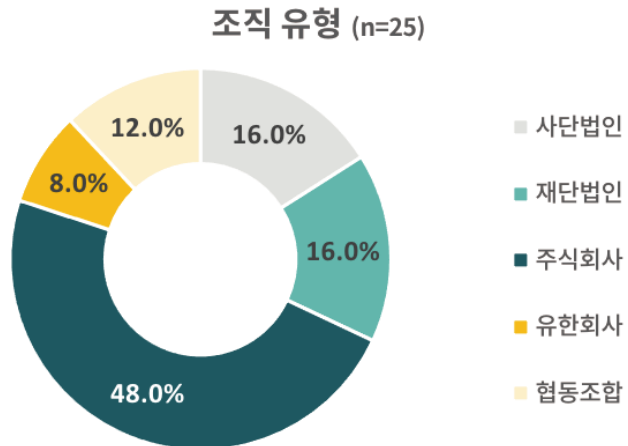
1. 조직 기본정보

1.1 요약

-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조직 기본정보와 관련하여 조직명, 대표자명, 조직 유형, 사회적 금융 사업의 유형, 사회적 금융 시작 연도, 금융업 관련 보유 라이선스, 총 인력 규모 및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규모를 조사하였음¹. 해당 항목들을 통해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의 기본 현황 및 사회적 금융 사업과 관련한 조직 현황을 살펴보았음.
- **(기본 현황)** 조사 대상 기관의 총 인력 규모는 평균 17.0명이며, 25개 기관 중 14개(56.0%)가 상법상 회사²의 형태인 것으로 파악됨.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은 전체 25개 중 16개(64.0%)로 나타남.
- **(사회적 금융 사업 관련 조직 현황)** 25개 기관 중 20개 기관(80.0%)이 2011년 이후, 즉 지난 10년 내에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금융 사업의 유형은 임팩트 투자사, 지역금융, 출연기금운용(비영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음.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규모는 평균 5.5명으로, 조직별 총 인력 규모 대비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규모 비율은 평균 32.4%로 나타남.

1.2 조직 유형

- 전체 25개 기관 중 주식회사가 12개(48.0%), 유한회사가 2개(8.0%)로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띤 기관 비중이 높았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각각 4개(16.0%), 협동조합은 3개(12.0%)로 나타남.



1 조직명 및 대표자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개별 기관의 사업 기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후 제시되는 조사 결과와 도표에서도 해당 정보는 생략하였음

2 상법상의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였음

1.3 사업 유형

- 가장 많은 기관들이 수행 중인 사회적 금융 사업 유형은 임팩트투자사로, 조사 대상 기관 25개 중 10개 기관(40.0%)이 해당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뒤를 이어 지역금융(8개, 32.0%), 출연기금운용(비영리)(7개, 28.0%) 순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금융 사업 유형을 ‘공제조직’, ‘마이크로크레딧’, ‘임팩트투자사’, ‘출연기금운용(비영리)’, ‘지역금융’, ‘상호금융’, ‘SIB운영기관’, ‘P2P운영기관’의 8가지로 나누어, 기관별로 해당하는 사업 유형과 비중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 응답기관 중 4개의 사회적 금융 사업 유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기관이 25개 중 1개 기관(4.0%)이며, 1개 유형의 사업만을 운영하는 기관이 전체 조사대상 25개 기관 중 14개(56.0%)로 나타남.
- ‘임팩트투자사’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10개 중 6개는 ‘임팩트투자사’ 사업 유형의 비중이 100%이며, 모두 ‘주식회사’이고, 4개가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관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금융’이나 ‘출연기금운용(비영리)’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은 대부분 ‘협동조합’, ‘재단법인’인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금융 사업 유형별 수행 기관 수(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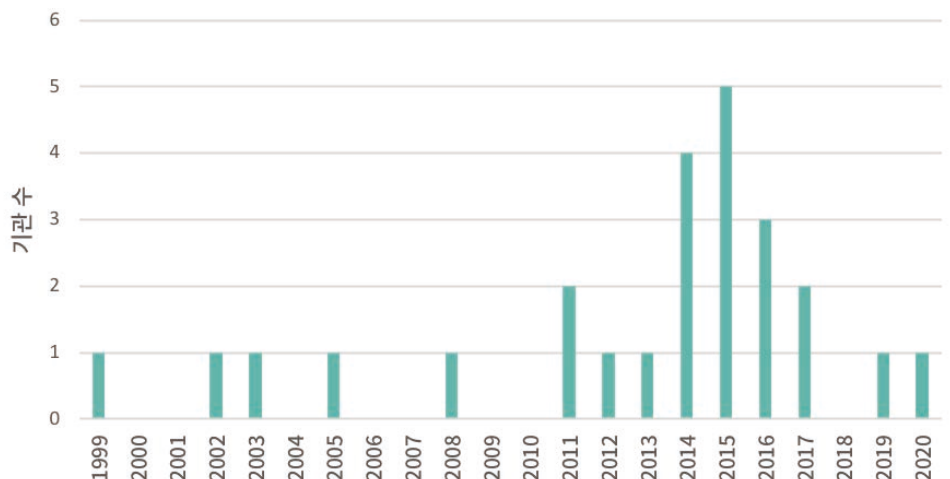
사업유형	공제조직	마이크로 크레딧	임팩트 투자사	출연기금 운용 (비영리)	지역금융	상호금융	SIB운영 기관	P2P금융 기관	기타
기관 수*	3	3	10	7	8	3	2	2	4

*해당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수

1.4 사회적 금융 시작 연도

- 조사 대상 기관 25개 중 20개 기관(80.0%)이 2011년 이후에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
 - 1999년에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한 1개 기관을 제외하고, 24개 기관이 모두 2002년 이후에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함.
 - 특히 2014년~2016년에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한 기관이 12개로 전체의 48.0%에 달함.
- 2005년 이전에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한 기관들은 모두 ‘출연기금운용(비영리)’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금융 시작 연도 (n=25)



1.5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³

-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은 전체 25개 중 16개(64.0%)로 나타남.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16개 조직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금융업 라이선스 중에서 총 6개 기관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뒤를 이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4개)로 나타남.
 - 조사대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업 라이선스의 종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창업투자회사’, ‘경영여신업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P2P연계대부업’,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펀드’로 나타남.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창업투자회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은 대부분 ‘임팩트투자사’ 유형의 사회적 금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이선스 보유 기관은 모두 사회적 금융 사업을 2014년~2017년 사이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별로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의 수(복수 응답)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	기관 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1
창업투자회사	2
경영여신업자 ⁴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2
P2P 연계대부업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펀드	1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수

1.6 총 인력 규모 및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 조사 대상 기관의 총 인력 규모는 평균 17.0명,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규모는 평균 5.5명으로, 조직별 총 인력 규모 대비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규모 비율은 평균 32.4%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해당 기관의 총 인력 규모와 해당 기관에서 사회적 금융 투융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규모를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음.
 - 총 인력 규모(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포함)가 가장 큰 기관은 39명, 가장 작은 기관은 2명이었으며, 사회적 금융 수행 인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13명, 가장 작은 기관은 1명⁵으로 나타남.
 - 총 인력 규모와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규모가 동일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 25개 중 3개였으며, 총 인력 규모 대비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규모의 비율이 가장 작은 기관은 8.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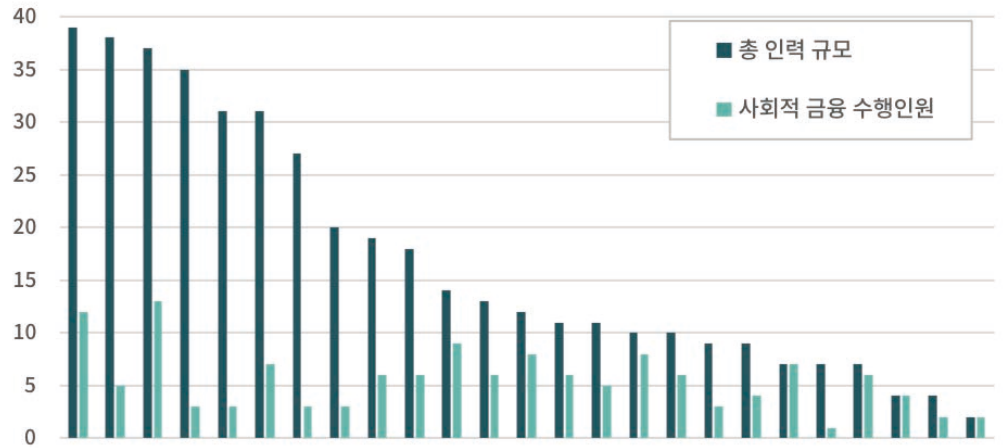
3 본 문항은 주관식, 복수 응답 문항으로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16개 조직의 복수 응답 내용을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임

4 경영여신업자에는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됨

5 사회적 금융 투융자 업무 수행 인원을 0명으로 응답한 기관이 있었으나 문항 상의 용어 정의와 관련된 오류로 판단되어 해당 응답값을 1명으로 정정하여 도출된 결과임

- 총 인력 규모가 30인 이상인 기관은 전체 25개 중 6개(24.0%)인데, 대부분 ‘출연기금운용(비영리)’, ‘지역금융’, ‘상호금융’ 등의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이고 모두 2015년 이전부터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한 기관들임.
-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규모가 5인 이하인 기관이 전체 25개 중 12개(48.0%)에 달하며, 대부분 2015년 이후에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한 기관들임.

총 인력규모 및 사회적 금융 수행인원 (n=25, 단위: 명)



2. 사회적 금융 현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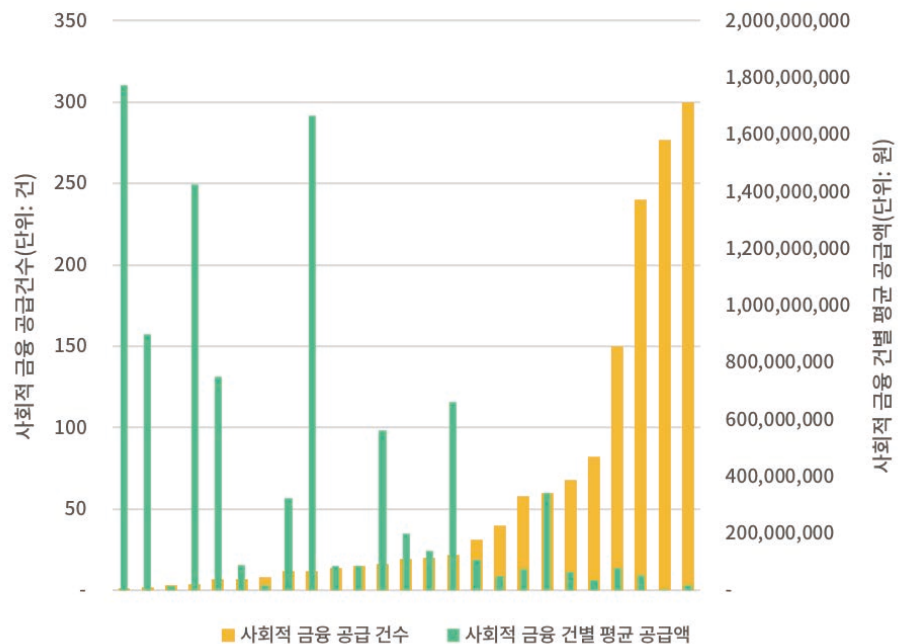
2.1 요약

-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금융 현황 정보와 관련하여 총 운용자산 규모,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액 및 공급 건수, 사회적 금융 공급 지역별 비중, 사회적 금융 공급 유형, 평균 요구수익률, 수익률 추경향, 자본조달 방식, 대상 자산군, 주요 임팩트 테마, 지속가능개발목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운용 실적 변화를 조사하였음. 해당 항목들을 통해 국내 사회적 금융의 전체적인 공급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공급 현황의 상세 내용과 코로나19가 사회적 금융 공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음.
- **(공급 규모와 분포)** 조사대상 기관의 총 운용자산 규모 합계는 1조 4,010억 6,600만원,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액 규모 합계는 1,394억 3,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기관의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 건수는 총 1,468건으로 기관당 평균 58.7건이었음. 사회적 금융의 공급 지역 분포를 살펴봤을 때는 국내 수도권(66.6%), 국내 비수도권(30.6%), 국외(2.8%)로 국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황 상세 ① - 자본조달 방식과 공급 유형)** 자본조달 방식은 ‘비영리재단 기금(14.4%)’과 ‘사회적경제 도매기금(한국벤처투자, 성장사다리펀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14.4%)’ 순으로 나타났음. 사회적 금융 공급 유형의 경우 회사, 프로젝트 또는 실제 자산에 직접적인 방식으로만 공급하는 경우가 64.0%,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공급하는 경우가 8.0%, 직접 및 간접 모두 공급하는 경우가 16.0%로 나타남.
- **(현황 상세 ② - 수익 추경향과 대상 자산군)** 사회적 금융 공급 자금의 평균 요구수익률은 5.5%로 나타났으며, ‘시장수익률 초과 또는 시장수익률 수준’을 추구하는 기관이 전체의 44.0%, ‘원금 보전 또는 그 이상’을 추구하는 기관이 40.0%, ‘(사회적 가치가 충분할 경우)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기관이 16.0%로 나타남. 사회적 금융 공급 시 가장 많은 기관들이 취득하는 대상 자산군으로는 ‘대출(28.8%)’, ‘투자(주식회사)(25.0%)’, ‘전환사채(15.4%)’의 3가지 유형이 전체의 6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황 상세 ③ - 임팩트 테마와 지속가능개발목표)** 기관별로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임팩트 테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개발(14.9%)’과 ‘주거, 사회적부동산(12.2%)’으로 부동산 관련·인접 테마가 전체의 2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기관이 공급하는 사회적 금융과 연관성이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는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14.4%)’,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12.0%)’,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12.0%)’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운용 실적 변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금융 운용 실적이 기존 계획 대비 증가한 기관이 전체의 48.0%, 유지된 기관이 28.0%, 감소한 기관이 20.0%,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기관이 4.0%로, 전체의 76.0%에 달하는 기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회적 금융 공급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2 공급 규모와 분포

- 조사대상 기관의 총 운용자산 규모 합계는 1조 4,010억 6,600만원이며,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액 규모 합계는 1,394억 3,500만원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관들이 해당 기관의 총 운용자산 규모와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액 (연간 추정치, 약정액 기준)을 백만원 단위로 직접 작성하여 응답하였음.
 - 총 운용자산 규모 합계는 1조 4,010억 6,600만원이며, 신탁 2개 기관이 총 8,200억원(58.5%)을 차지하고 있음.
 - 23개 기관(신탁포함)의 총 운용자산 규모는 기관당 평균 609억 1,590만원이며, 이 중 신탁 2개 기관을 제외한 21개 기관의 총 운용자산 규모는 기관당 평균 276억 6,98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듦⁶.
- 조사대상 기관 25개 전체의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 건수는 총 1,468건이었으며, 기관당 평균 58.7건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관들이 해당 기관의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 건수에 대해서 직접 작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음. 이 때 사회적 금융 공급 건수란 사회적 금융 투유자를 집행하는 건수를 의미함.
 - 사회적 금융 공급 건수가 240건~300건으로 높은 기관들은 주로 ‘공제조직’, ‘마이크로크레딧’, ‘출연기 금융(비영리)’ 등의 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직들로, 특히 마이크로크레딧의 경우 소액대출이기에 공급건수가 많게 나타남.
 - 공급 건수가 1~2건으로 크게 낮은 기관의 경우 주로 ‘SIB운영기관’ 유형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로, SIB 사업 특성상 공급 건수가 적게 나타남.
 -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액 합계를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 건수 합계로 나누어서 도출한 건당 평균 사회적 금융 공급액은 9,500만원으로 나타남.
 - 총 운용자산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금융 사업을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한 기관들이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그룹과 가장 큰 그룹으로 양분되어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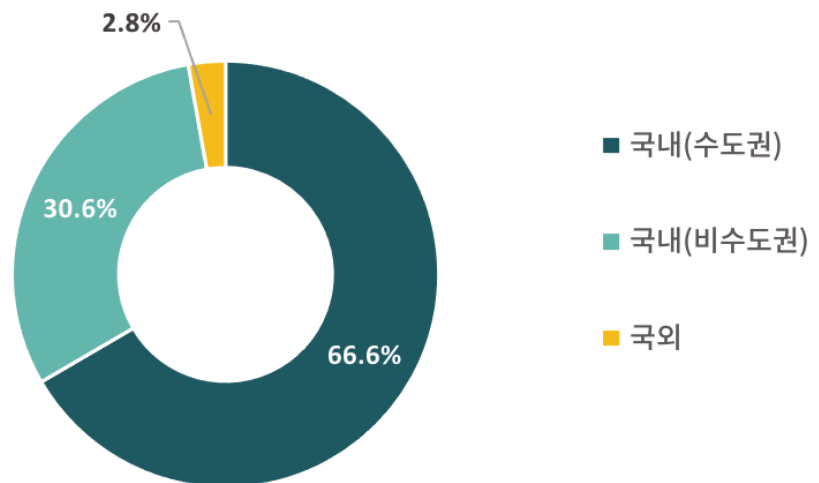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 건수 및 건별 평균 공급액 (n=25)



⁶ 총 운용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SIB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개 기관이 사업 유형 특성상 적용이 적합하지 않아서 N/A(알 수 없음) 처리하였고 23개 기관 응답값을 바탕으로 도출하였음

- 조사대상 기관들의 사회적 금융 공급 지역 분포는 대부분 국내(97.2%)로,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이 66.6%에 달함.
 -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금융 공급 지역을 ‘국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국내-비수도권’, ‘국외’ 3가지로 나누어, 기관별로 각각에 대하여 공급액 비중을 10퍼센트(%)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국외에도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은 총 4개로 모두 ‘임팩트투자사’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개가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사회적 금융 공급이 국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내 비수도권 또는 국외 투자가 늘어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23개 기관중에서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금융 공급을 50%이상 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5개정도에 불과함. 5개 기관 중에서 2개 기관만이 비수도권 비중이 90% 이상으로 나타나서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금융 공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금융 공급 지역 (n=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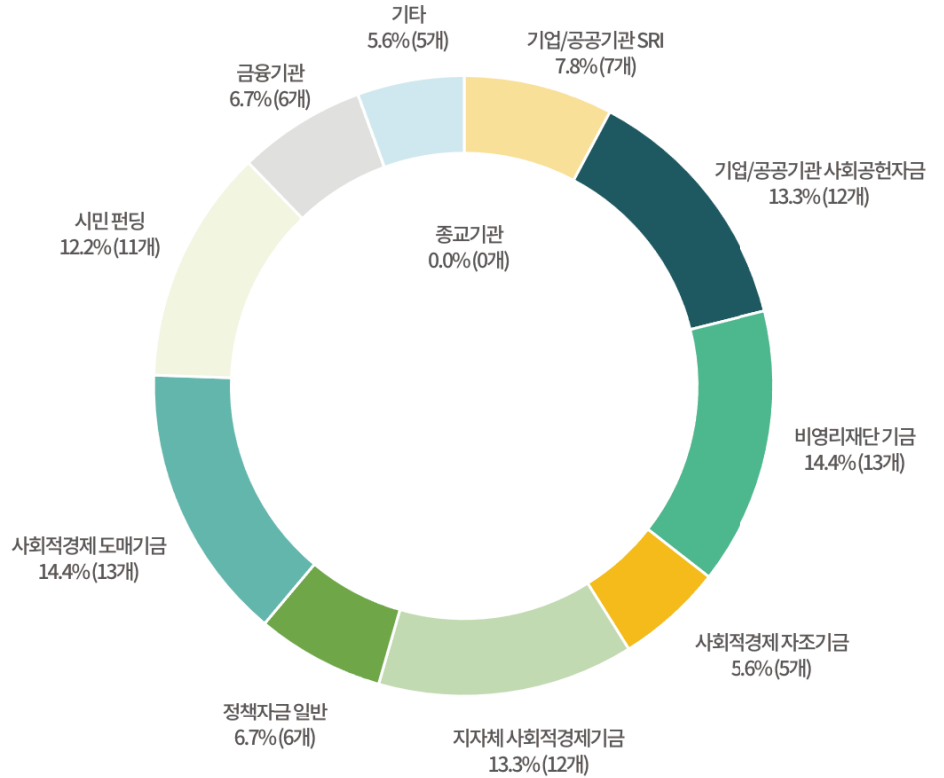


2.3 현황 상세 ① - 자본 조달 방식과 공급 유형

- 사회적 금융 자본조달 방식은 ‘비영리재단 기금(14.4%)’과 ‘사회적경제 도매기금(한국벤처투자, 성장사다리펀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14.4%)’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뒤를 이어 ‘기업/공공기관 사회공헌자금(13.3%)’과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13.3%)’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기관이 사회적 금융을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업/공공기관 SRI(사회책임투자)’, ‘기업/공공기관 사회공헌자금’, ‘비영리재단 기금’,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정책자금 일반(중소기업, 서민금융 등)’, ‘사회적경제 도매기금(한국벤처투자, 성장사다리펀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시민 펀딩(개인투자, 출자, 예금 등)’,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종교기관’, ‘기타’ 중 해당하는 모든 방식을 선택하게 한 후, ‘기타’ 응답 결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재분류를 진행하였음.
 - 비영리성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기업/공공기관 사회공헌자금’, ‘비영리재단 기금’ 두 가지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7.8%로 나타남.
- 종교기관 또는 일반 금융기관의 비중이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서는 글로벌 생태계와 달리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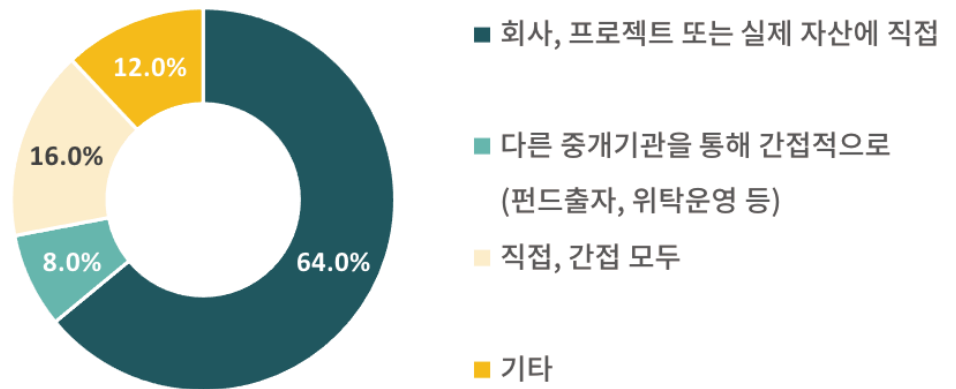
적으로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종교기관'에서 사회적 금융 자본을 조달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혀 없었고,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아닌 일반 금융과 관련된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의 비중은 6.7%로 나타남.

사회적 금융 자본 조달 방식 (복수응답)



- '회사, 프로젝트 또는 실제 자산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 전체 25개 중 16개(64.0%)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펀드출자, 위탁운영 등)'만 공급하는 기관이 2개(8.0%)로 나타남. 직접, 간접 공급 모두 수행하는 기관이 4개(16.0%)였고, '기타' 유형이 3개(12.0%)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금융 공급 시 공급 유형을 '회사, 프로젝트 또는 실제 자산에 직접',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펀드출자, 위탁운영 등)', '기타' 3가지로 나누어, 기관별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한 후 '기타' 응답 결과 중 직접, 간접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일부 응답에 대하여 재분류를 진행하였음.
 - '기타'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은 SIB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2개, 민간 자금을 기업에 중개하는 형태의 P2P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1개였음.
- 전체 25개 기관 중 사회적 금융을 직접 공급한다고 응답한 기관(직접, 간접 공급 모두 수행하는 기관 포함)이 20개(80.0%)로 현재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금융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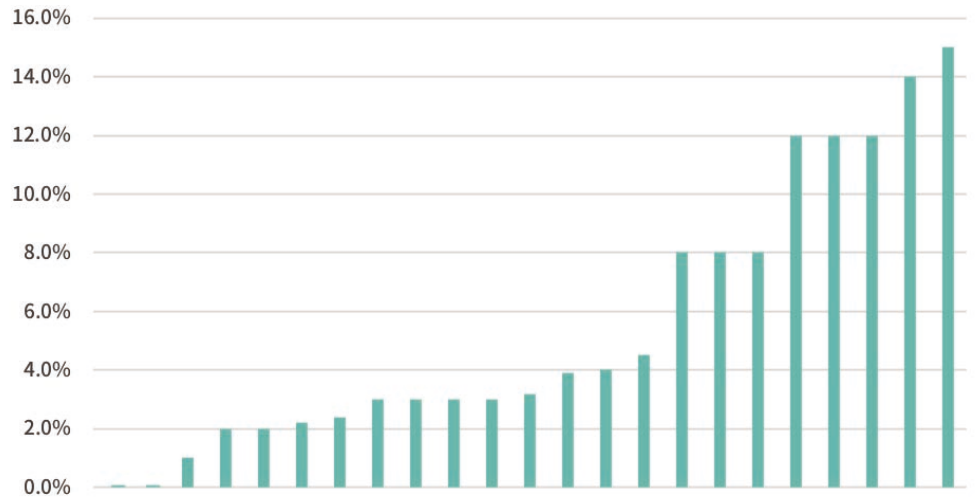
사회적 금융 공급 유형 (n=25)



2.4 현황 상세 ② - 수익 추구 경향과 대상 자산군

- 조사대상 기관들이 공급하기로 한 자금의 평균적인 요구수익률은 5.5%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요구수익률은 15.0%, 가장 낮은 요구수익률은 0.0%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기관들이 공급하기로 한 자금의 요구수익률 가중평균을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음. 25개의 조사대상 기관 중 2개 기관이 미응답 처리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결과는 23개 기관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음.
 - 요구수익률이 0.0%인 기관 2개를 제외하면 평균 요구 수익률은 6.0%로 나타남.
 - 요구수익률이 0.0%라고 응답한 기관은 2개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이나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비영리재단 기금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 자본을 조달하고 ‘출연기금운용(비영리)’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적 금융 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자산이 ‘대출’로 나타남.
- 평균 요구수익률은 5~6% 내외로 나타났으나 기관별 요구수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12% 이상의 요구수익률을 보이는 그룹과 4% 이하의 요구수익률을 보이는 그룹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요구수익률이 12% 이상인 기관은 5개로 전체 응답 기관 23개 중 21.7%이며, 해당 기관들은 2014년 이후에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한 기관들로 대부분 ‘임팩트투자사’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 금융 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대상 자산군이 대체로 ‘투자(주식회사)’ 또는 ‘전환사채’로 나타남.
 - 요구수익률이 4% 이하인 기관은 14개로 전체 응답 기관 23개 중 60.9%이며, ‘출연기금운용(비영리)’이나 ‘지역금융’ 유형의 사업 운영 비중이 높음. 또한 사회적 금융 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대상 자산군에 대해서는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대출’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평균 요구수익률 (n=23)



*2개 기관이 미응답

- 조사 대상 기관 25개 중 ‘시장수익률 초과’ 또는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11개(44.0%)로 나타났고, ‘원금 보전 이상’ 또는 ‘원금 보전’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10개(40.0%)로 나타났으며, ‘원금 손실 감수(사회적 가치가 충분할 경우)’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기관은 4개(1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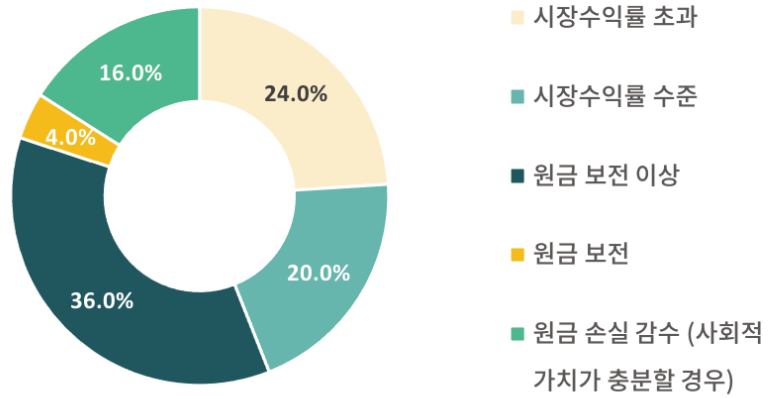
-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금융 공급 시 수익률 추구경향을 ‘시장수익률 초과’, ‘시장수익률 수준’, ‘원금 보전 이상’, ‘원금 보전’, ‘원금 손실 감수(사회적 가치가 충분할 경우)’의 5가지로 나누어 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수익률 추구 경향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수준의 수익률 추구 경향을 보인 기관들은 ‘공제조직’, ‘마이크로크레딧’, ‘출연 기금운용(비영리)’ 등의 사업을 주로 운영하며 사회적 금융을 시작한 년도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관 들임.

- 원금 보전 이상 또는 원금 보전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은 ‘임팩트투자사’, ‘출연 기금운용(비영리)’, ‘지역금융’ 등의 사업 유형을 주로 운영하되 ‘상호금융’, ‘SIB운영기관’, ‘P2P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사업 유형을 포괄하고 있으며, 대체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한 기관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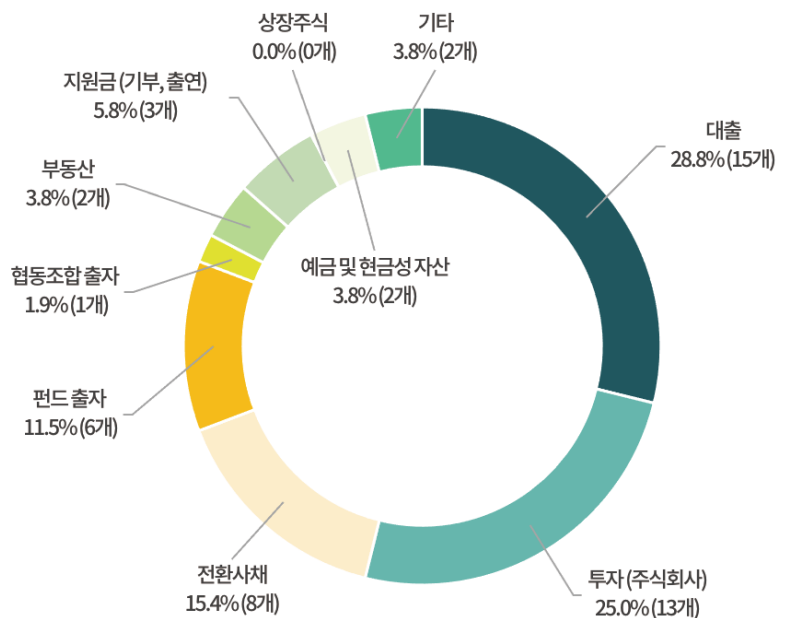
- 시장수익률 초과 또는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들은 ‘임팩트투자사’ 유형의 사업 운영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 2010년대부터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시작한 기관들임.

수익률 추구 경향 (n=25)



- 사회적 금융 공급 시 대상 자산군으로 가장 많은 기관이 응답한 유형은 ‘대출(28.8%)’이었고, 뒤를 이어서 ‘투자(주식회사)(25.0%)’, ‘전환사채(15.4%)’, ‘펀드 출자(11.5%)’가 많은 유형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기관들이 사회적 금융 공급 시 취득하는 대상 자산군을 ‘대출’, ‘투자(주식회사)’, ‘전환사채’, ‘펀드 출자’, ‘협동조합 출자’, ‘부동산’, ‘지원금(기부, 출연)’, ‘상장주식’, ‘예금 및 현금성 자산’, ‘기타’로 나누어,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음. ‘기타’를 선택한 2개 기관은 각각 SIB 투자계약과 일반 채권으로 응답함.
 - ‘대출’, ‘투자(주식회사)’, ‘전환사채’의 3가지 유형이 전체의 69.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사회적 금융 공급 시 취득하는 대상 자산군인 것으로 나타남.
- ‘대출’을 대상 자산군으로 응답한 기관들은 대부분 사회적 금융으로 공급하기로 한 자금의 요구수익률이 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공공기관 사회공헌자금’, ‘비영리재단 기금’,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관련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주식회사)’ 또는 ‘전환사채’를 대상 자산군으로 응답한 기관들 중에는 요구수익률이 12% 이상인 기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자본조달 방식이 ‘기업/공공기관 사회공헌자금’, ‘비영리재단 기금’ 외에도 ‘기업/공공기관 SRI(사회책임투자)’, ‘사회적경제 도매기금(한국벤처투자, 성장사다리펀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시민 펀딩(개인투자, 출자, 예금 등)’ 등 다양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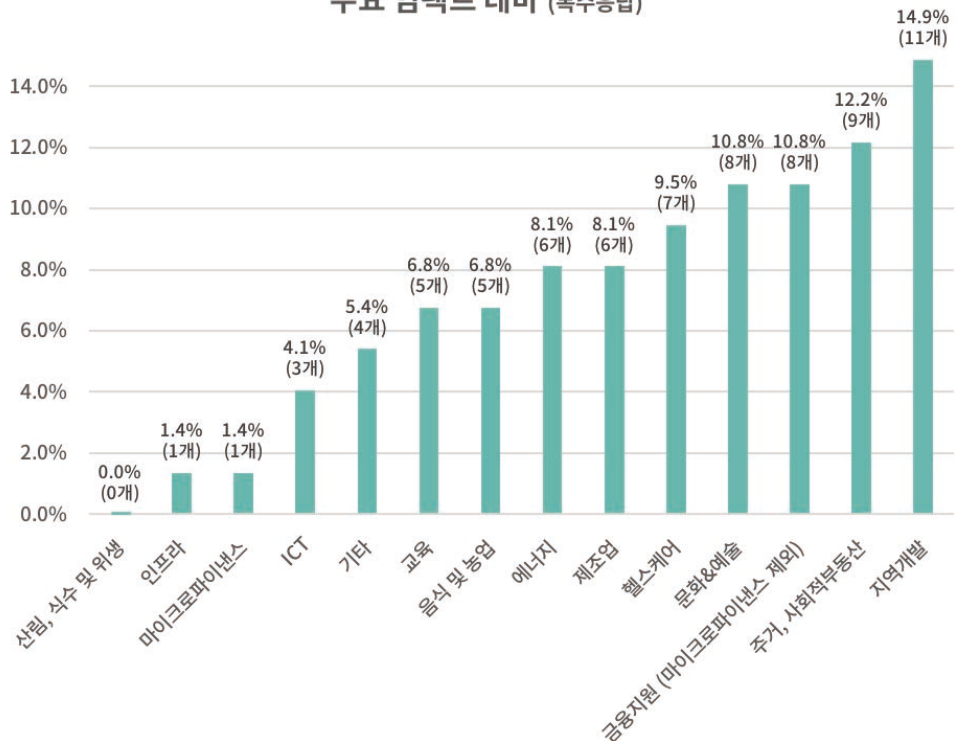
대상 자산군 (복수응답)



2.5 현황 상세 ③ - 임팩트 테마와 지속가능개발목표

- 기관별로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임팩트 테마는 ‘지역개발(14.9%)’와 ‘주거, 사회적부동산(12.2%)’으로 순으로 나타났음. ‘산림, 식수 및 위생’을 주요 임팩트 테마로 선택한 기관은 없었음.
 - 본 조사에서는 기관별로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주요 임팩트 테마를 ‘교육’, ‘문화&예술’, ‘산림, 식수 및 위생’, ‘에너지’, ‘음식 및 농업’, ‘인프라’, ‘주거, 사회적부동산’, ‘제조업’, ‘금융지원(마이크로파이낸스 제외)’, ‘헬스케어’, ‘마이크로파이낸스’, ‘ICT’, ‘기타’로 나누어⁷ 해당하는 테마를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음.
 - ‘기타’에 응답한 기관 15개로 나타나서 비중이 높았음. 11개 기관이 ‘지역개발’로 응답해서 ‘지역개발’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여 응답 결과를 재분류하였음. 그 외 ‘기타’로 응답한 기관들이 응답한 테마는 ‘분야에 제약 없음’이 2개, ‘고용’과 ‘SIB’가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남.
 -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서베이⁸ 결과에서는 ‘음식 및 농업’, ‘헬스케어’, ‘기타’ ‘에너지’ 순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주요 테마는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와 글로벌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주거, 사회적부동산’과 같이 부동산 관련 또는 인접 테마의 비중이 전체의 2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미루어볼 때 본 조사의 결과는 로컬이나 도시재생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 국내 생태계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산림, 식수 및 위생’과 ‘에너지’와 같은 환경 관련 테마의 비중이 8.1%에 그쳐, 글로벌 생태계와 비교하였을 때 환경 관련 테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주요 임팩트 테마 (복수응답)



7 제시된 임팩트 테마들은 GIIN 2020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를 준용하여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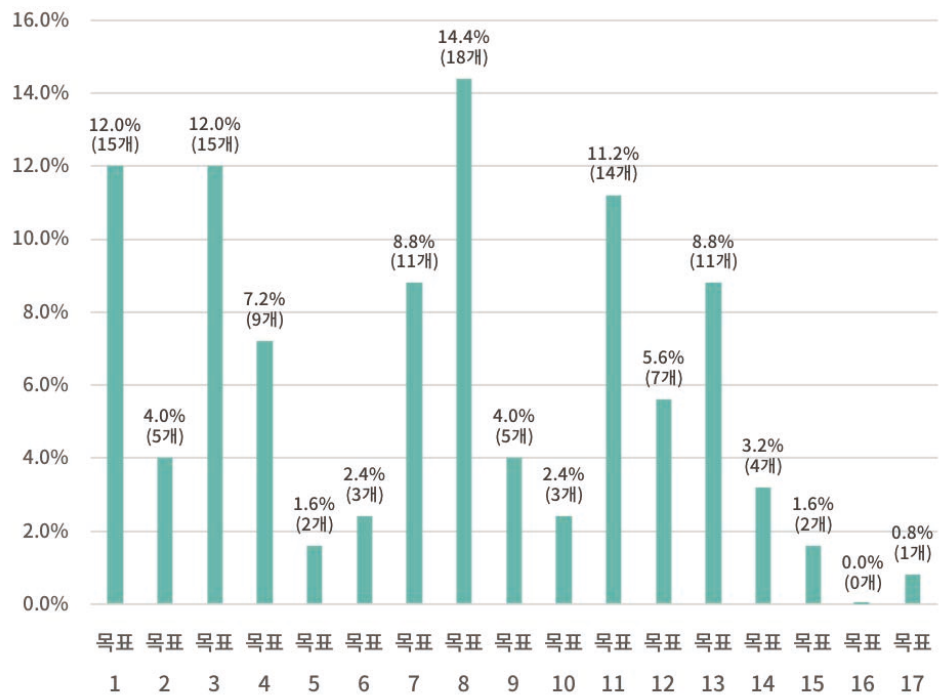
8 GIIN, 2020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기관별로 공급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과 연관성이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들 중 가장 비중이 높게 나온 목표는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14.4%)’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12.0%)’,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12.0%)’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목표 16: 인권, 정의, 평화’를 선택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기관별로 공급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과 연관성이 높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목표(Goal) 단위로 목표 1~17과 기타 중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음. ‘기타’를 선택한 기관은 3개였는데 이 중 2개 기관은 다른 목표를 복수 선택하였으며 문항 상의 용어 정의와 관련된 오류로 판단되어 해당 응답값을 N/A(알 수 없음) 처리하였고, 1개 기관의 경우 다른 목표 선택 없이 ‘SIB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하여 해당 기관의 응답은 N/A(알 수 없음) 처리하였음.

-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서베이⁹ 결과에서도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연관성 차원에서는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와 글로벌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일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기관별 연관성이 높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복수응답)



*1개 기관이 미응답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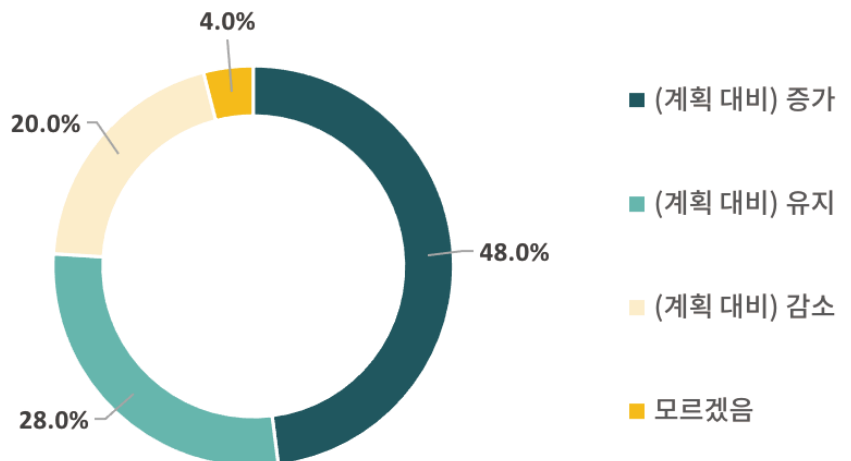
번호	내용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 5	성평등 보장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 16	인권, 정의, 평화
목표 17	지구촌 협력 확대

2.6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운용 실적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금융 운용 실적이 기존 계획 대비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 25개 중 12개(48.0%)로 나타났고, 기존 계획이 유지되었다고 응답한 기관은 7개(28.0%), 기존 계획 대비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은 5개(20.0%),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관은 1개(4.0%)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계획하였던 금융 운용 실적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획 대비) 증가’, ‘(계획 대비) 유지’, ‘(계획 대비) 감소’, ‘모르겠음’의 4가지로 나누어 기관별로 해당하는 변화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서베이¹⁰ 결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계획된 투자활동이 유지되었다고 응답한 기관은 57.0%,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은 20.0%, 증가했다는 기관은 15.0%, 불확실하다고 대답한 기관은 7.0%로 나타났음. 코로나 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의 비중이 높지 않은 양상은 글로벌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의 금융 운용 실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계획 대비 증가되거나 유지되었다는 기관이 전체의 76.0%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정책적인 차원에서든 개별 기관의 의지적인 차원에서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회적 금융 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계획 대비 금융 운용실적 변화 (n=25)



3. 사회적 가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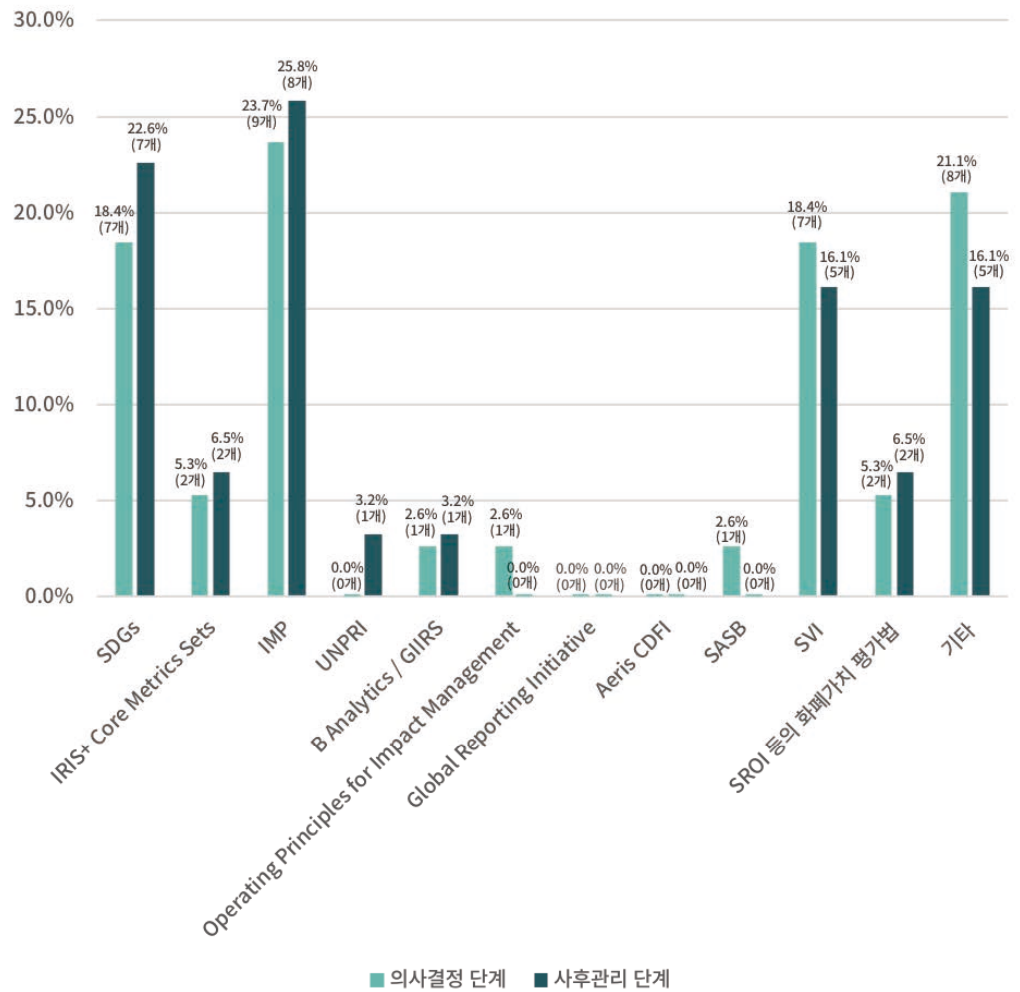
3.1 요약

-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 활용여부 및 활용방식,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 활용여부 및 활용방식을 조사하였음. 해당 항목들을 통해 국내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체계 사용 실태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정·평가체계를 살펴보았음.
-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 사회적 금융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를 활용하는 기관은 전체의 84.0%로 나타나며, 이들 기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체계는 ‘IMP(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및 관리 방안)’, ‘기타’, ‘SDGs(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SVI(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성과지표)’로 나타남.
- **(사후관리 단계)** 사회적 금융 공급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를 활용하는 기관은 전체의 72.0%로 나타나며, 이들 기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체계는 ‘IMP(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및 관리 방안)’, ‘SDGs(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SVI(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성과지표)’, ‘기타’로 나타남.

3.2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 활용

- 사회적 금융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 25개 중 21개(84.0%)로 나타남. 21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의사결정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측정·평가체계로 응답한 것은 ‘IMP(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및 관리 방안)’으로 9개(23.7%) 기관이 해당 체계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유형이 8개(21.1%)로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자체 기준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음. ‘기타’ 다음으로 많은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SDGs(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와 ‘SVI(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성과지표)’는 각각 7개(18.4%)씩을 차지하였는데, 그 외의 체계들은 모두 2개(5.3%) 이하의 기관들이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활용되는 정도가 높지 않았음.
-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금융 공급시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에 대해서는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IRIS+ Core Metrics Sets(IRIS/IRIS+ 핵심 메트릭 세트)’, ‘IMP(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및 관리 방안)’, ‘UNPRI(책임 있는 투자를 위한 유엔 원칙)’, ‘B Analytics / GIIRS’, ‘Operating Principles for Impact Management(사회적 가치 관리를 위한 운영 원칙)’,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Aeris CDFI 등급 시스템’, ‘SASB(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위원회)’, ‘SVI(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성과지표)’, ‘SROI 등의 화폐가치 평가법’, ‘기타’의 12가지로 나누어 활용중인 체계를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음.
- 의사결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모든 기관이 3개 이하의 평가체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활용하는 사회적가치 측정·평가체계 (복수응답)



3.3 사후관리 단계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 활용

- 사회적 금융 공급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 25개 중 18개(72.0%)로 나타남. 18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의사결정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측정·평가체계로 응답한 것은 ‘IMP(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및 관리 방안)’으로 8개(25.8%) 기관이 해당 체계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SDGs(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가 7개(22.6%)로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기타’와 ‘SVI(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성과지표)’가 각각 5개(16.1%)씩을 차지하였고 그 외 체계들은 모두 2개(6.5%) 이하로 활용되는 정도가 높지 않았음.
 -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의 선택 문항과 동일한 보기 항목(19쪽 참고)으로 진행하였음.
 -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모든 기관이 3개 이하의 평가체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타’로 응답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자체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국내 생태계에서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이 28.0%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IMP(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및 관리 방안)’를 가장 많은 기관들이 활용하는 체계로 응답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해당 체계들을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내 생태계에 필요한 시점을 알 수 있음.

4. 사회적 금융 시장과 관련된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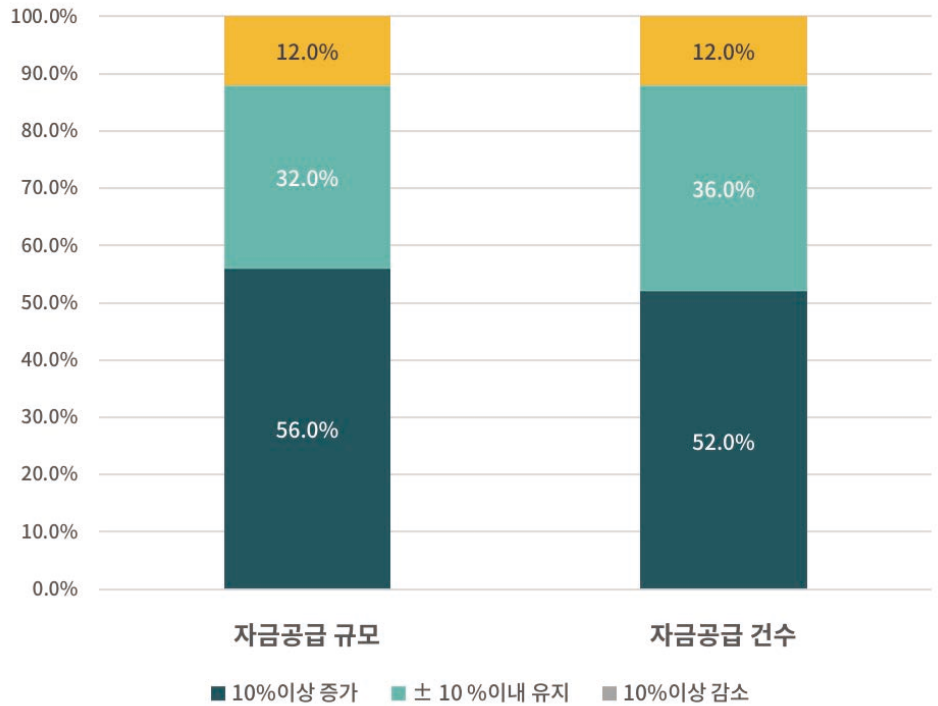
4.1 요약

-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금융 시장과 관련된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2021년 자금 공급 규모 및 공급 건수에 대해 예상되는 변화, 향후 5년간 공급을 고려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테마 및 테마별 공급 계획, 국내 사회적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를 조사하였음. 해당 항목들을 통해 국내 사회적 금융 시장의 단기적인 규모 차원의 예상 변화, 중장기적인 임팩트 테마별 예상 변화추이와 더불어 향후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대비하여야 할 위기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음.
- **(전년도 대비 자금공급 규모 및 공급건수 예상 변화)** 전년도와 비교하여 2021년에 사회적 금융 자금공급 규모와 건수가 증가 또는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각각 전체 25개 기관 중 22개(88.0%)로 나타나, 생태계의 양적 성장에 대한 기관들의 긍정적 전망을 보여줌.
- **(향후 5년간 고려하고 있는 테마 및 테마별 공급계획)** 기관별로 향후 5년간 고려하고 있는 임팩트 테마는 ‘주거(15.1%)’와 ‘헬스케어(12.6%)’, ‘에너지(10.1%)’와 ‘교육(10.1%)’ 순으로 나타남. 테마별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테마가 ‘증대’ 또는 ‘유지’ 계획이 최소 60% 이상을 차지하고, ‘감소’ 계획은 최대 12%에 그쳐 전반적으로 ‘증대’가 기본적인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사회적 금융 개선과제와 위기요인)** 국내 사회적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순위 개선과제는 ‘정부 외에 지속적인 LP 등 사회적 투자자 풀 확대’(20.0%)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위험/수익을 고려한 적정 자본(Appropriate capital)’과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각각 16.0%로 나타남.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로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을 답한 기관이 전체 25개 중 9개(36.0%)로 가장 많았음.

4.2 전년도 대비 자금공급 규모 및 공급건수 예상 변화

- 전년도 대비 2021년에 자금공급 규모와 건수가 증가 또는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각각 전체 25개 기관 중 22개(88.0%)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전년도(2020년)와 비교하여 2021년 자금공급 규모와 자금공급 건수 각각에 대하여 기관별로 예상되는 변화를 ‘10%이상 증가’, ‘±10%이내 유지’, ‘10%이상 감소’로 나누고, 기관별로 해당하는 변화 양상을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였음.
 - 전년도 대비 2021년에 자금공급 규모가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25개 중 14개(56.0%), ±10%이내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8개(32.0%), 10%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3개(12.0%)로 나타남.
 - 전년도 대비 2021년에 자금공급 건수가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25개 중 13개(52.0%), ±10%이내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9개(36.0%), 10%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3개(12.0%)로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기관들이 향후 자금공급 규모와 건수에 대하여 증가 또는 현상 유지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년도 대비 2021년 자금공급 규모 및 건수의 예상 변화 (n=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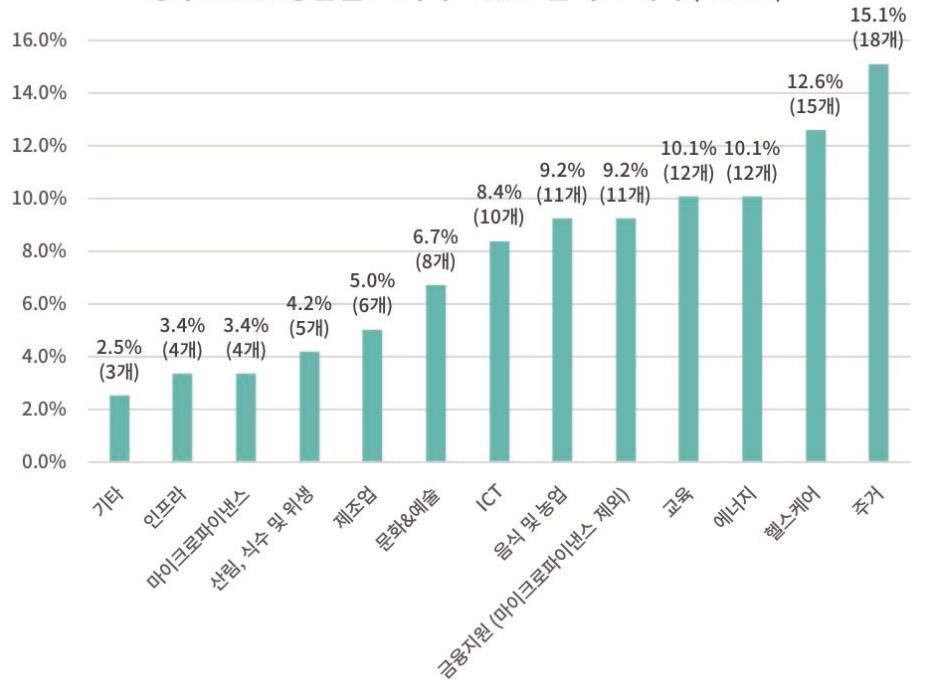
4.3 향후 5년간 고려하는 테마 및 테마별 공급계획

- 기관별로 향후 5년간 고려중인 임팩트 테마 중 가장 비중이 높게 나온 임팩트 테마는 ‘주거(15.1%)’와 ‘헬스케어(12.6%)’로 나타남. 뒤를 이어 ‘에너지(10.1%)’와 ‘교육(10.1%)’이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임팩트 테마로 나타났음. ‘주거’는 현재(14.9%)와 향후 5년간(15.1%) 공급을 고려하는 주요 임팩트 테마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기관별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공급을 고려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테마를 ‘교육’, ‘문화&예술’, ‘산림, 식수 및 위생’, ‘에너지’, ‘음식 및 농업’, ‘인프라’, ‘주거, 사회적 부동산’, ‘제조업’, ‘금융지원(마이크로파이낸스 제외)’, ‘헬스케어’, ‘마이크로파이낸스’, ‘ICT’, ‘기타’로 나누어¹¹ 해당하는 테마를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음.
- 향후 해당 테마에 대한 공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계획의 비중이 가장 높은 테마는 ‘에너지(56.0%)’, ‘주거(52.0%)’, ‘헬스케어(52.0%)’로 나타남.
 - 향후 5년간 공급을 고려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테마 각각에 대하여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향후 공급 계획을 ‘감소’, ‘유지’, ‘증대’, ‘불확실’ 중 하나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음.
 -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서베이¹² 결과에서는 향후 해당 테마에 대한 공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계획의 비중이 높은 정도가 ‘음식과 농업’, ‘에너지’, ‘헬스케어’ 순으로 나타나,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와 글로벌 사회적 금융 생태계는 비슷한 양상을 띠나 일부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대부분의 테마가 ‘증대’ 또는 ‘유지’ 계획이 최소 60% 이상을 차지하고, ‘감소’ 계획은 최대 12%에 그쳐 전반적으로 ‘증대’가 기본적인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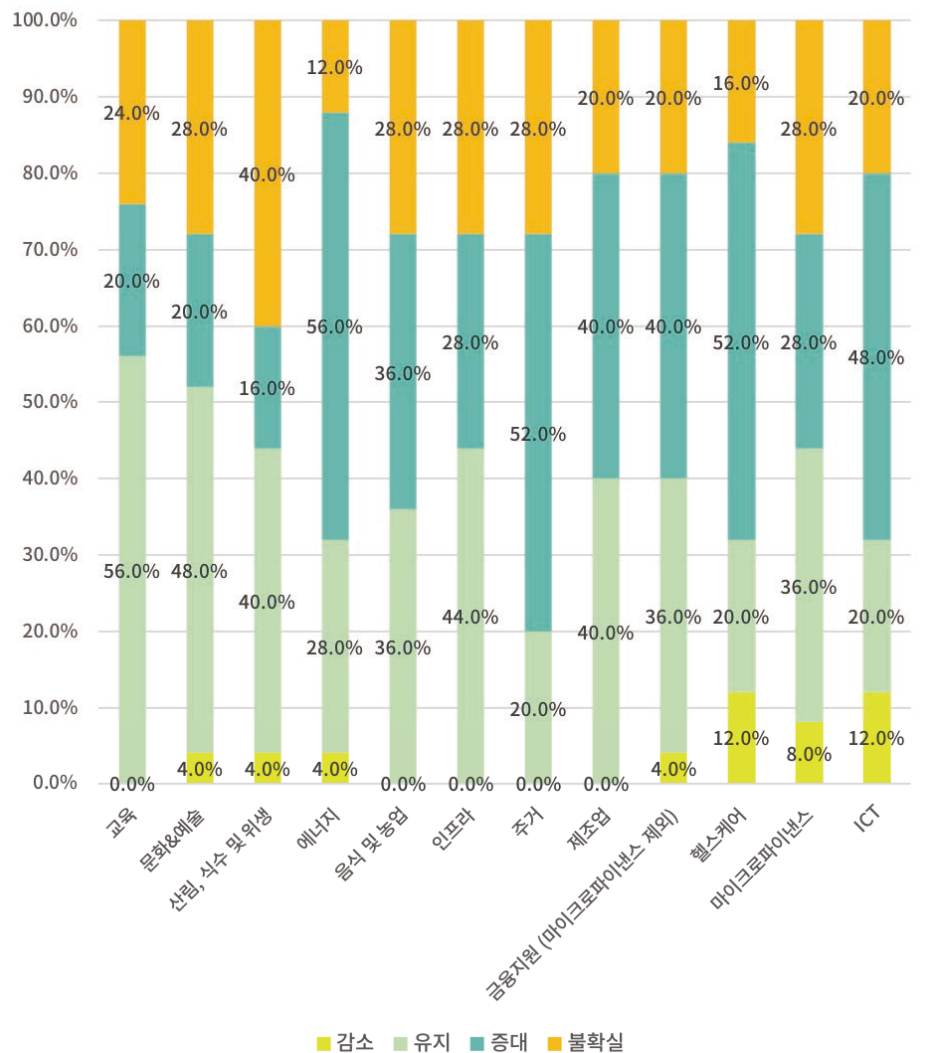
☒☒ 제시된 임팩트 테마들은 GIIN 2020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를 준용하여 선정함

12 GIIN, 2020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향후 5년간 공급을 고려하고 있는 임팩트 테마 (복수응답)



테마별 향후 공급계획 (n=25)



4.4 국내 사회적 금융 개선과제와 위기요인

- 국내 사회적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개선과제로 기관들이 응답한 것은 ‘정부 외에 지속적인 LP 등 사회적 투자자 풀 확대’로, 전체 25개 기관 중 5개 기관(20.0%)이 해당 과제를 1순위로 응답함. 뒤를 이어 ‘위험/수익을 고려한 적정 자본(Appropriate capital)’과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각각 4개 기관(16.0%)으로 나타남.
 - 2순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5개 기관(20.0%)에 의해 중요한 과제로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4개 기관(16.0%)이 ‘위험/수익을 고려한 적정 자본(Appropriate capital)’으로 응답하였음.
 - 3순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25개 기관 중 6개 기관(24.0%)이 ‘사회적 가치 측정 관리/방법론의 발전’을 3순위로 중요한 개선과제라 응답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투자 전문가 유입 및 육성’,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위험/수익을 고려한 적정 자본(Appropriate capital)’을 답한 기관이 각각 3개씩(12.0%)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과제를 ‘투자 전문가 유입 및 육성’, ‘사회적 금융 시장의 동향 및 성과에 대한 연구’,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실적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 개발’,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이해’, ‘사회적 가치 측정 관리/방법론의 발전’, ‘위험/수익을 고려한 적정 자본(Appropriate capital)’, ‘적절한 회수(exit) 방안’,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제도(피투자 기업의 기본/신용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법론 등)’, ‘정부 외에 지속적인 LP 등 사회적 투자자 풀 확대’,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재단에 대한 5% 제한규정 등)’, ‘투자자 또는 피투자자의 요구가 반영된 혁신적인 금융상품’, ‘투자 상품 및 투자 기회에 대한 데이터 제공’의 13가지로 나누어, 이 중 우선순위 과제를 각 기관별로 1, 2, 3순위로 나누어 선택하도록 하였음.
-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로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을 답한 기관이 전체 25개 중 9개(36.0%)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서술하고 보고할 수 있는 공통으로 합의된 프레임워크(언어)의 부족’과 ‘기타’로 각각 3개(12.0%)씩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를 ‘금융 시장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사회적 또는 환경적 과제에 대한 무관심’, ‘사회적 가치 성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다른 조직들과 비교하기 어려움’, ‘사회적 가치 관리와 재무 관리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움’, ‘사회적 가치 성과를 서술하고 보고할 수 있는 공통으로 합의된 프레임워크(언어)의 부족’,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 ‘사회적 가치 측정과 사회적 가치 관리 방식의 파편화’, ‘임팩트 투자에 따른 재무 성과 입증의 어려움’,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제도의 부족(피투자조직의 기본/신용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론 등)’, ‘투자처의 부족’, ‘LP 풀의 부족’, ‘기타’의 11가지로 나누어, 기관별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1개씩 선택하도록 하였음.
 - ‘기타’를 선택한 기관들의 세부 응답 내용으로는 사회적 가치 중심보다 개인주의가 우선하는 시장의 문화, 임팩트 투자 기관의 포트폴리오 동일화 현상 등이 있었음.
 -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서베이¹³ 결과에서도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로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내 사회적 금융과 글로벌 사회적 금융 생태계 모두 향후 생태계가 대비하여야 할 위기 중 ‘임팩트 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사회적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 과제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볼 때, 기관들이 개별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펀드를 조성하고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핵심적인 LP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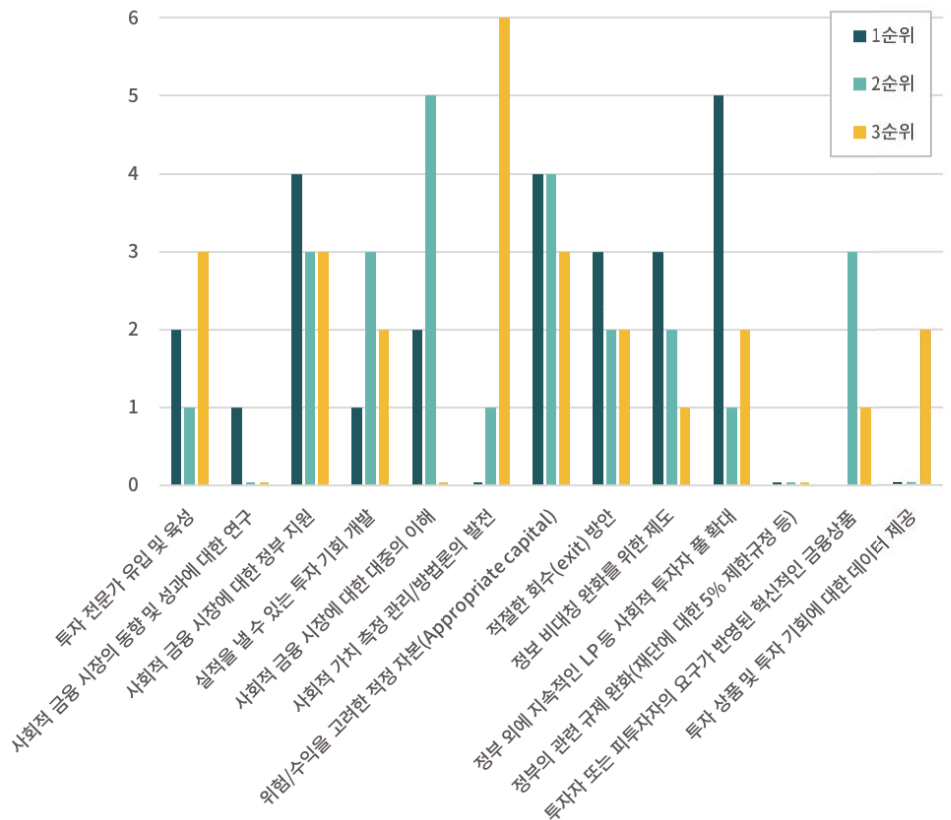
속적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LP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생태계의 성장에 발맞추어 개별 사회적 금융 기관들도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정자본의 충분한 공급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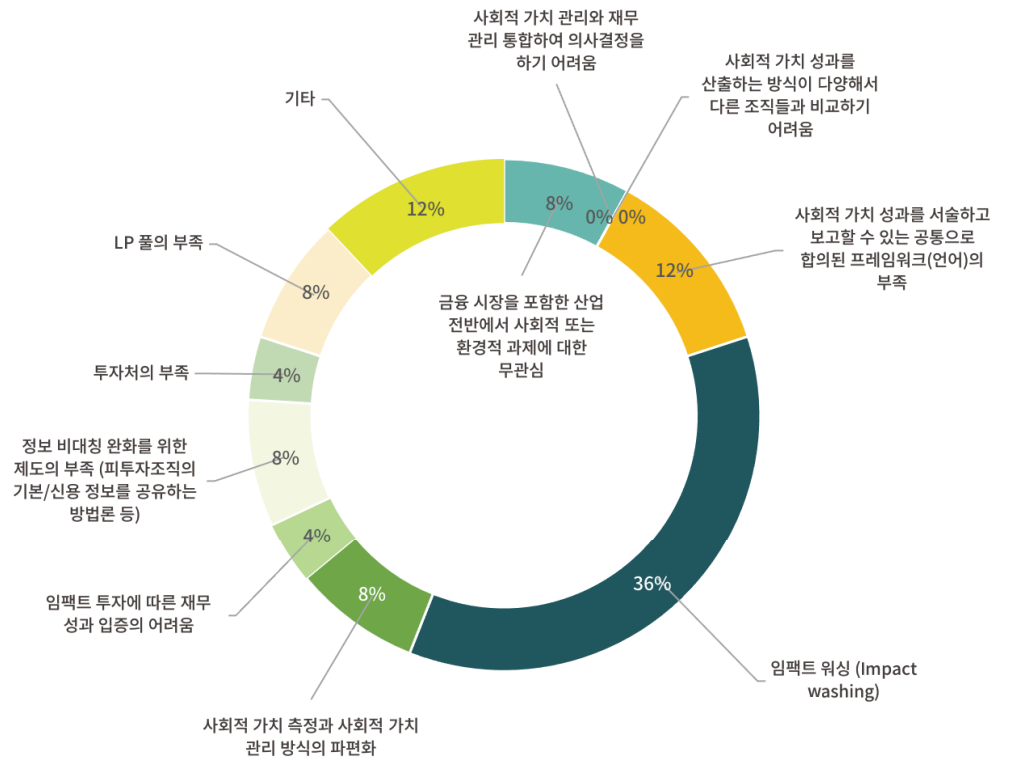
· 향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위기 중 명료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와 관련된 항목인 ‘임팩트 워싱 (Impact washing)’, ‘사회적 가치 측정과 사회적 가치 관리 방식의 파편화’, ‘사회적 가치 성과를 서술하고 보고할 수 있는 공통으로 합의된 프레임워크(언어)의 부족’이 전체의 56.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사회적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들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생태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요인에 대한 관리 및 대비 방안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명료한 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줌.

사회적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n=25)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 (n=25)



III. 결론

1. 주요 함의

- **(규모의 성장)** 정부 주도로 일어난 임팩트 펀드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금융의 다양한 기관들에서의 성장이 생태계적 총량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들의 성장으로도 잘 보여지고 있어, 외연의 확대가 명확히 관찰됨.
 - 서베이에 응답한 25개의 사회적 금융 기관의 총 운용자산은 1조 4,010억 6,600만원이었으며, 연간 1,394억 3,500만원 규모로 사회적 금융을 공급 중인 것으로 확인함.
 - 이는 2017년 이전까지의 사회적 금융 성장에 비하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당 시장이 성장하였음을 보여주어, 긍정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사회적 금융 기관 및 금융공급 방식의 다변화)** 23개의 사회적 금융 포럼 회원사와, 포럼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서베이에 참여한 2개 기관의 응답 내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다양성이 매우 확대되었고, 상호간의 유사성과 더불어 금융 공급 방식의 다변화도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회적 금융 공급 대상 자산군의 유형은 ‘대출(28.8%)’, ‘투자(주식회사)(25.0%)’, ‘전환사채(15.4%)’, ‘펀드 출자(11.5%)’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업 라이선스의 유형도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투자회사’, ‘겸영여신업자’,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으로 다양해져, 다양한 기관과 활동들을 통한 사회적 금융 공급이 적절히 개선되기 시작하였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요구수익률은 평균 5.5%로 나타났는데 최소 0.0%에서 최대 15.0%까지 스펙트럼이 확장되어, 지나치게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만 적절히 유의를 기울인다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글로벌 생태계와의 연관성)**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는 글로벌 생태계와 비교하면 이제 막 성장중인 단계이지만, 글로벌 생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과 주요 지점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대동소이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됨.
 - 기관별로 현재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14.4%)’,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12.0%)’,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12.0%)’으로 나타나 글로벌 생태계와 매우 일치 수준이 높음. 또한 기관별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운용실적 변화에서 ‘감소’의 비중이 낮은 양상도 글로벌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게 나타남.
 - 다만 현재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테마 중 ‘산림, 식수 및 위생’이나 ‘에너지’ 등 환경 관련 테마

의 비중이 매우 낮고 ‘지역개발’, ‘주거, 사회적부동산’ 등의 비중이 높은 점, 향후 공급 증대가 예상되는 테마가 ‘에너지(56.0%)’, ‘주거(52.0%)’, ‘헬스케어(52.0%)’인 점 등은 글로벌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인식 증대)**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자리잡은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실질적인 현장에서 체감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적용과 실천 수준과는 다소간의 괴리가 있어 사회적 가치 측정이 점진적으로 생태계 내에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파악됨.

- 사회적 금융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각각 전체의 84.0%, 72.0%이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체계로서 ‘IMP(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및 관리 방안)’, ‘SDGs(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SVI(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성과지표)’와 자체 기준 등이 제시됨.

-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체계들을 적용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결과가 보고서로 발행되거나 공개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지 않아, 국내 생태계에서는 많은 경우 이러한 체계들의 관점이나 지식을 고려하고 가볍게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글로벌 생태계와 같이 해당 체계의 적용을 엄밀하고 적합하게 적용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됨.

- **(임팩트 워싱에 대한 경각심)**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공급 규모와 건수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지만, 그와 동시에 지속적인 LP 풀의 확대가 우선순위 개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임팩트 워싱에 대한 위기의식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솔루션을 생태계 내에서 적합하게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됨.

- 전년 대비 2021년의 사회적 금융 자금공급 규모와 건수가 증가 또는 유지될 것이라 응답한 기관은 각각 전체의 88.0%로 나타났고, 향후 5년간 임팩트 테마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테마에서 증대 또는 유지가 최소 6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계획은 최대 12%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대’가 기본적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외에 지속적인 LP 등 사회적 투자자 풀을 확대’(20.0%)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개선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로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36.0%)’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태계 내에서 마련해나감으로써 생태계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적절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과제 및 제언

- **(사회적 금융 전문인력 육성과 확충)** 사회적 금융 기관에 전용될 수 있는 육성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금융 투자자 업무 수행에 특화된 전문인력 및 사회적 금융 공급에 대한 전문기관 육성이 매우 중요함. 본 조사에 응답한 25개 기관의 전체 사회적 금융 수행인력은 138명이고 기관별 총 인력 규모 대비 사회적 금융 수행인력의 비율도 32.4% 수준에 그쳐 아직까지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일반 금융이 아니라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생태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육성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LP 풀 확대)**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정부 이외의 LP 확보의 중요성이 높음. 사회적 금융 공급을 위한 자본조달에 있어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정책 기조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LP가 유입되어 LP 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단 관련 제한규정 완화나 민간도매금융 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매우 높은만큼 이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사회적 금융 기관들은 이미 기존의 다양한 체계들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적용하고자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직접 관련 지표를 다 개발하기보다는, 생태계에 공급된 자금이 투자된 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명료하게 측정,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을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국외와 지역으로의 확장)** 생태계의 기본적 현황과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한계점 중 하나는 현재 사회적 금융 공급이 국내 수도권에 66.6%가 집중되어 있고, 국외의 비중은 단 2.8%에 그친다는 점임. 사회적 금융의 본질상 지역금융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시아 내에서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할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할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규모를 늘려 자연적으로 지역과 국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과 국외에 집중적으로 투자자를 수행하도록 맞춤형으로 구성되는 펀드, 기금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부록 1. 서베이 문항

사회적 금융 포럼_ 사회적 금융 관련 설문지

본 설문은 사회적 금융 포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사회적 금융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사회적 금융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설문은 4개 영역(조직 기본정보, 사회적 금융 현황정보, 임팩트 측정정보, 사회적 금융시장과 관련된 향후 전망)의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응답내용은 본 설문의 목적에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직 기본정보]

사회적 금융과 관련하여 해당 조직의 기본정보를 기입하는 영역입니다.

1. 귀사의 조직명을 적어주십시오.

2. 귀사의 대표자명을 적어주십시오.

3. 귀사의 법인 유형을 선택해주시십시오.

- ① 사단법인
- ② 재단법인
- ③ 주식회사
- ④ 유한회사
- ⑤ 협동조합
- ⑥ 기타 ()

4. 본 조직의 사회적 금융 사업유형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주시고 그 비율을 선택해주시십시오.

본 문항의 답변은 비율 총합 100%로 맞춰 주시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0%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공제조직
- ② 마이크로크레딧
- ③ 임팩트투자사
- ④ 출연기금 운용 (비영리)
- ⑤ 지역금융
- ⑥ 상호금융
- ⑦ SIB운영기관
- ⑧ P2P금융기관
- ⑨ 기타 ()

5. 본 조직에서 사회적 금융을 처음 시작한 연도를 적어주십시오.

본 문항의 답변은 숫자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연도)

6. 본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적어 주십시오.

7. 본 조직의 총 인력 규모를 적어주십시오.

본 문항의 답변은 숫자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8. 본 조직의 사회적 금융 투융자 수행 인원 현황을 적어 주십시오.

본 문항의 답변은 숫자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사회적 금융 현황정보]

사회적 금융(투자/융자) 현황 및 성과를 기입하는 영역입니다.

9. 현재 귀사의 총 운용자산 규모를 적어주십시오. (단위: 백만원)

본 문항의 답변은 숫자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10.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액을 적어주십시오. (단위: 백만원, 연간 추정치, 약정액 기준)

본 문항의 답변은 숫자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11.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 건수를 적어주십시오. (단위: 건)

본 문항의 답변은 숫자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건)

12. 귀사에서 사회적 금융을 공급한 지역과 금액 기준의 비율을 선택해주시십시오.

본 문항의 답변은 비율 총합 100%로 맞춰 주시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0%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내-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② 국내-비수도권

③ 국외

13. 귀사에서 사회적 금융 집행 시, 집행 유형은 어떠한가요?

- ① 회사, 프로젝트 또는 실제 자산에 직접
- ②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펀드출자, 위탁운영 등)
- ③ 기타()

14. 올해 귀사에서 공급하기로 한 자금의 평균 요구수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위: %, 요구수익률 가중평균)

본문항의 답변은 숫자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15. 귀사의 수익률 추경향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주시시오.

- ① 시장수익률 초과
- ② 시장수익률 수준
- ③ 원금 보전 이상
- ④ 원금 보전
- ⑤ 원금 손실 감수 (사회적 가치가 충분할 경우)

16. 귀사의 사회적 금융을 위한 자본 조달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기업/공공기관 SRI (사회책임투자)
- ② 기업/공공기관 사회공헌자금
- ③ 비영리재단 기금
- ④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 ⑤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 ⑥ 정책자금 일반 (중소기업, 서민금융 등)
- ⑦ 사회적경제 도매기금 (한국벤처투자, 성장사다리펀드, 한국사회 가치연대기금 등)
- ⑧ 시민 펀딩 (개인투자, 출자, 예금 등)
- ⑨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 ⑩ 종교기관
- ⑪ 기타()

17. 귀사에서 사회적 금융을 집행 시, 대상 자산군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대출

② 투자 (주식회사)

③ 전환사채

④ 펀드 출자

⑤ 협동조합 출자

⑥ 부동산

⑦ 지원금 (기부, 출연)

⑧ 상장주식

⑨ 예금 및 현금성 자산

⑩ 기타()

18. 귀사가 사회적 금융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임팩트 테마를 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최대 3개)

- ① 교육
- ② 문화&예술
- ③ 산림, 식수 및 위생
- ④ 에너지
- ⑤ 음식 및 농업
- ⑥ 인프라
- ⑦ 주거, 사회적부동산
- ⑧ 제조업
- ⑨ 금융지원 (마이크로파이낸스 제외)
- ⑩ 헬스케어
- ⑪ 마이크로파이낸스
- ⑫ ICT
- ⑬ 기타()

19. 귀사에서 집행하시는 사회적 금융과 연관성이 높은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아래보기에서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② 목표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 ③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 ④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⑤ 목표 5: 성평등 보장
- ⑥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 ⑦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⑧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⑨ 목표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 ⑩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⑪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⑫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⑬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 ⑭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 ⑮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 ⑯ 목표 16: 인권, 정의, 평화
- ⑰ 목표 17: 지구촌 협력 확대
- ⑱ 기타 ()

- ③ IMP (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및 관리 방안)
- ④ UNPRI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한 유엔 원칙)
- ⑤ BAnalytics / GIIRS
- ⑥ Operating Principles for Impact Management (임팩트 관리를 위한 운영 원칙)
- ⑦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 ⑧ Aeris CDFI 등급 시스템
- ⑨ SASB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위원회)
- ⑩ SVI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성과지표)
- ⑪ SROI 등의 화폐가치 평가법
- ⑫ 기타 ()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 계획된 금융 운용 실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계획 대비) 증가
- ② (계획 대비) 유지
- ③ (계획 대비) 감소
- ④ 모르겠음

[임팩트 측정 정보] _사후관리

22. 사회적 금융 투융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임팩트를 측정하고 있으십니까?

- ① 네
- ② 아니오

(아래는 22번 문항에서 '네'를 선택한 응답자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2-1. 현재 사회적 금융과 관련하여 임팩트를 측정하실 때 어떠한 방식(예: 도구,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SDGs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 ② IRIS+ Core Metrics Sets (IRIS/IRIS+ 핵심 메트릭 세트)
- ③ IMP (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및 관리 방안)
- ④ UNPRI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한 유엔 원칙)
- ⑤ BAnalytics / GIIRS
- ⑥ Operating Principles for Impact Management (임팩트 관리를 위한 운영 원칙)
- ⑦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 ⑧ Aeris CDFI 등급 시스템
- ⑨ SASB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위원회)
- ⑩ SVI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성과지표)
- ⑪ SROI 등의 화폐가치 평가법
- ⑫ 기타 ()

[임팩트 측정 정보]

임팩트 측정과 관련된 현황을 기입하는 영역입니다. 임팩트 측정과 관련된 현황을 기입하는 영역입니다. 투융자 결정 단계의 사회적 가치 평가, 투융자 집행 후 사후관리 차원의 모니터링 구분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임팩트 측정 정보] _투융자 의사결정

21. 사회적 금융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에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네
- ② 아니오

(아래는 '네'를 선택한 응답자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1-1. 투융자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로 어떠한 방식(예: 도구,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SDGs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 ② IRIS+ Core Metrics Sets (IRIS/IRIS+ 핵심 메트릭 세트)

[사회적 금융시장과 관련된 향후 전망]

사회적 금융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 및 생태계에 대한 전망을 기입하는 영역입니다.

23. 전년도와 비교하여 귀 기관의 2021년 자금공급 규모에 예상되는 변화가 있습니까?

- ① 10%이상 증가
- ② ± 10%이내 유지
- ③ 10%이상 감소

24. 전년도와 비교하여 2021년 자금공급 건수에 예상되는 변화가 있습니까?

- ① 10%이상 증가
- ② ± 10%이내 유지
- ③ 10%이상 감소

25. 향후 5년간 투융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테마를 선택해주시시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영역도 포함됩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교육
- ② 문화&예술
- ③ 산림 식수 및 위생
- ④ 에너지
- ⑤ 음식 및 농업
- ⑥ 인프라
- ⑦ 주거
- ⑧ 제조업
- ⑨ 금융지원 (마이크로파이낸스 제외)
- ⑩ 헬스케어
- ⑪ 마이크로파이낸스
- ⑫ ICT
- ⑬ 기타* ()

26. 위에서 선택한 사회적 금융 테마를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투자를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각 테마를 선택한 후, 해당 테마별로 ① 감소, ② 유지, ③ 증대, ④ 불확실의 수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7.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문항은 우선 순위에 맞춰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투자 전문가 유입 및 육성
- ② 사회적 금융 시장의 동향 및 성과에 대한 연구
- ③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 ④ 실적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 개발
- ⑤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이해
- ⑥ 임팩트 측정 관리/방법론의 발전
- ⑦ 위험/수익을 고려한 적정 자본 (Appropriate capital)
- ⑧ 적절한 회수(exit) 방안
- ⑨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제도 (피투자 기업의 기본/신용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법론 등)
- ⑩ 정부 외에 지속적인 LP 등 사회적 투자자 풀 확대
- ⑪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 (재단에 대한 5%를 등)
- ⑫ 투자자 또는 피투자자의 요구가 반영된 혁신적인 금융상품
- ⑬ 투자 상품 및 투자 기회에 대한 데이터 제공

28. 향후 5년 동안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금융 시장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사회적 또는 환경적 과제에 대한 무관심
- ② 임팩트 성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다른 조직들과 비교하기 어려움
- ③ 임팩트 관리와 재무 관리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움
- ④ 임팩트 성과를 서술하고 보고할 수 있는 공통으로 합의된 프레임워크(언어)의 부족
- ⑤ 임팩트 워싱 (Impact washing)
- ⑥ 임팩트 측정과 임팩트 관리 방식의 파편화
- ⑦ 임팩트 투자에 따른 재무 성과 입증의 어려움
- ⑧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제도의 부족(피투자조직의 기본/신용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론 등)
- ⑨ 투자처의 부족
- ⑩ LP 풀의 부족
- ⑪ 기타 ()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사회적 금융 포럼 소개자료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 포럼'

홈페이지 <https://www.socialfinance.kr>

'사회적 금융 포럼'은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사회혁신 기업에 투융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로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 분야 대표성을 갖는 민간조직,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마이크로크레딧, 공제, 지역금융, 임팩트 투자, P2P금융, SIB(사회성과보상사업)등 다양한 사회적 금융 분야를 포괄하며,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구축, 사회적 금융 현황·성과 공유, 민간투자 및 시민참여 활성화, 지식교류 등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20년 3월, 20개 사회적 금융 기관은 '사회적 금융 포럼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내실화·규모화·지역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 국회의원선거 사회적 금융 정책 요구안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대 전략·5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금융 유관기관 간의 협력 활동을 지속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포럼의 거버넌스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20년 10월 26일 국내 최대규모 사회적 금융 네트워크로 출범하였습니다.

사회적 금융 포럼 개요

명칭	사회적 금융 포럼
기능	사회적 기업·사회혁신 기업에 투·융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목표	사회적 금융의 제도환경 공동 조성과 국내외 지식교류를 통한 동반 성장
추진방향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대표성을 갖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 및 운영
대상	사회적 금융을 주 사업으로 활동하는 조직, 전문가, 일부 공공기관 : 비영리조직(재단법인, 마이크로크레딧), 공제조직, 지역금융(신협 등), 임팩트투자사, P2P금융기관, SIB운영기관
주요사업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구축, 사회적 금융 현황·성과 공유, 민간투자 및 시민참여 활성화, 지식교류 등

사회적 금융 포럼 참여기관

IFK임팩트금융(유), (주)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사)나눔과미래, 동작신협, (주)디쓰리주빌리파트너스, (주)비플러스, 사회연대은행(사)함께 만드는세상, (사)피피엘, (주)소풍벤처스, ARK임팩트자산운용(주), (주)오마이컴퍼니, (주)임팩트스퀘어,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재단법인 밴드, 주민신협, (주)크레비스파트너스, (유)팬임팩트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재)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주)한국사회혁신금융,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 금융 포럼 및 서베이 참여기관

No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 홈페이지	기관 소개
1	 IFK임팩트금융(유)	김민수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53 ifk.kr	IFK임팩트금융(한국임팩트금융)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투자하는 사회적금융 회사입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임팩트금융 추진위원회>를 모체로 같은 해 10월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들을 주주(사원)로 하는 유한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융과 구별되는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통해 의미를 만드는 투자를 합니다.
2	 (주)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서울시 성동구 독섬로1나길 5, G402 (성수동1가,헤이그라운드) mysc.co.kr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미스크)는 혁신을 돕는 혁신 기업입니다. MYSC(Merry Year Social Company) 사명에 언급된 ‘희년’(Merry Year)이란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MYSC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MYSC는 사회혁신 컨설팅, 임팩트투자,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등을 통해 사회혁신을 만들어갑니다. 사회문제는 혁신의 또 다른 원천이 되기에, 기업이 사회문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소셜벤처 육성과 투자를 통해 소셜임팩트의 선행 지표로 널리 확산합니다. MYSC는 사내기업가 조직으로서 구성원의 성장과 성숙이 곧 조직의 성장과 성숙이 됨을 믿으며, 구성원들의 혁신 역량과 개념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가의 혁신을 고도화하며 지속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3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김진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경남 창원과학기술진흥원 1516호 (팔용동) blog.naver.com/ gsvf2020/221900213436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는 경남도내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들과 중간지원조직들이 주주로 참여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으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비즈니스 확대와 성장에 기여하고자 설립('19.12월)되었습니다.
4	 (사)나눔과미래	송경용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환승주차빌딩 705호 yesnanum.org	<p>나눔과미래는 빈곤과 주거문제 등으로 눈물짓는 이들의 행복과 권리에 주목하고, 복지와 주거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역에서부터 나눔을 통해 일구어 가며 다음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p> <p>① 주거복지사업 : 집 없는 이웃과 무주택 서민의 든든한 벗 되기 - 노숙인의 새로운 아침을 열어가는 ‘아침을여는집’ - 가난한 이웃의 집 문제를 돌봐주는 ‘성북, 종로 주거복지센터’ - 주거약자의 자립과 희망의 꿈을 키우는 ‘나눔마을’, ‘청년마을’</p> <p>② 지역복지사업 :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랑이 가득한 반찬나눔 ‘사랑찬 봉사단’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지구촌을 위한 ‘꽃을심는손’ -일하는 주민이 주인인 희망찬 자활공동체 ‘양천지역자활센터’</p> <p>③ 지역활성화사업 : 커뮤니티의 내일을 함께 꿈꾸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기관,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적부동산을 함께 만드는 ‘지역자산화’ -이웃들과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주거재생팀’</p>

5	 동작신탁	안재남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9 dongjakcu.co.kr	동작신탁은 동작구에 계시는 지역민이 서로 힘을 모아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지역민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구매 활동 등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통해 사회를 좀 더 밝게 하고, 건전한 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우리의 보람으로 여기며,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하는" 지역민의 협동운동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힘을 모아 살맛나는 동네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회운동체입니다.
6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이덕준	서울시 성동구 독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407호 d3jubilee.com	2011년 성공한 벤처 창업가들에 의해 설립된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는 혁신적 기술벤처와 함께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회사입니다.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임팩트 투자섹터에서 활동해 왔으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임팩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및 트렌드와 맞물려 사회,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및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며,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임팩트 벤처에 투자합니다.
7	 (주)비플러스	박기범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814호 benefitplus.kr	국내 최초 임팩트투자 오픈 플랫폼 비플러스는 사회적 프로젝트와 시민/지역주민 투자자를 연결합니다. 사회의 빈 곳을 채워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정부 기금과 벤처 캐피탈 투자가 조성되어 있지만, 비플러스는 '사회적 프로젝트와 일반 시민/지역 주민을 연결한다'는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소비와 직업을 통해서만 금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개인에게 'P2P 투자'를 통한 참여를 제안합니다.
8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김용덕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40 알파라운드 2층 bss.or.kr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은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사회경제영역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9	 (사)피피엘	김동호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96, 이연빌딩 4층 pplkorea.org/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더좋은세상 피피엘은 사회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사회혁신, 자립, 국제개발협력, 사회적금융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더좋은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10	 (주)소풍벤처스	한상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2 길 20, 카우앤독 3층(지점) sopoong.net	소풍(sopoong)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시드투자자와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임팩트 액셀러레이터입니다. 임팩트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만드는 신생 및 초기 소셜벤처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1	 ARK 임팩트자산운용(주)	한성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17층 (여의도동, 전국 경제인연합회회관) arkimpact.co.kr	2003년 6월에 설립된 ARK는 한국 자본시장 최초의 100% 임팩트투자 자산운용사로, 사모펀드를 통해 임팩트투자를 실행합니다. 사모펀드란 투자자를 50인 미만으로 모집하는 펀드입니다. 펀드의 투자고객들과 함께 ARK의 경영진과 펀드매니저들이 동일한 펀드에 똑같이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합니다.
12	 (주)오마이컴퍼니	성진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5번지) 1동 미래청 6층 602호 - C ohmycompany.com	클라우드펀딩으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목표로 하는 오마이컴퍼니는 사회변화를 꿈꾸는 혁신가들을 지지하고 돕는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지역상생, 시민자산화, 사회주택, 가치금융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3	 (주)임팩트스퀘어	도현명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53 impactsquare.com	임팩트스퀘어는 "임팩트"와 "비즈니스"간의 매커니즘에 대해 진정성있게 연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해온 임팩트 비즈니스 전문 조직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사회공헌, CSV, 비영리 프로젝트, ESG 관련 활동 등을 자문, 연구해왔으며, 다양한 소셜벤처들과 사업협력, 연계, 공동 창업, 운영, 투자 등의 형태로 성장을 고민하고 협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임팩트 즉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와 온전히 결합할 때, 위대한 비즈니스가 구현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임팩트 비즈니스 빌더,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혹은 임팩트 비즈니스 컨설팅 및 연구 조직 이라고 부릅니다.

14	 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유유미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9(서계동 99-15) 보은개발빌딩 7층 701호 jahwal.or.kr	전국주민협동연합회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특별기구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주민들과 지역의 저소득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의 힘으로 출자하여 조성하고, 적립된 출자금을 조합원 대출사업 등으로 운용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자조운동조직의 연합회입니다.
15	 BAND FOUNDATION 재단법인 밴드	하정은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2층 sefund.or.kr	재단법인 밴드는 2014년 사회적기업 분야 최초의 자조기금인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을 기획 운영하며 다양한 정책자금을 연계하고 공급하는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쌓았습니다.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에서 재단법인으로 분리독립 후 소셜임팩트 확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투융자, 성장지원, 혁신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경영지원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임팩트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의 가치를 더 높이는 성장파트너로 함께합니다.
16	 주민신용협동조합 주민신협	이현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주민신협행복빌딩 cafe.naver.com/ jumincu	신협은 민간주도 설립된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입니다. 나와 이웃, 금융기관과 조합원 모두 행복해지는 금융, 주변을 살피고 미래를 키우는 햇살 같은 금융, 주민신협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17	 CREVISSE (주)크레비스파트너스	김재현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88 노벨빌딩 4층 crevisse.com	크레비스(Crevisse)는 "창의적인 전략, 선지적인 관점, 사회적 목적을 가진 창업가들(Creative, Visionary and Social Entrepreneurs)"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비록 무모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 아직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내 보자는 신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도전이 더 이상 "무모하거나 불가능한 일" 이 아닌 "충분히 즐겁게 도전하며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오늘을 혁신하고, 내일을 바꿉니다.
18	 팬임팩트코리아 PAN-IMPACT KOREA LLC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엡3빌딩 710, 711호 panimpact.kr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는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SIB) 사업의 기획 및 운영, 혁신적 방법을 통한 공익적 가치의 확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연구와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	 신나는조합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이선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joyfulunion.or.kr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은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한국 최초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을 결합한 통합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중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	 SM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6층 svsfund.org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9년 1월 국내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으로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융자 지원합니다. 또, 사회적 금융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현장에 밀착된 수요자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사회가치 투자자이자 연대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사회적 금융 시장 조성자가 되겠습니다.
21	 한국사회투자 KOREA SOCIAL INVESTMENT FOUNDATION (재)한국사회투자	이종익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상상청 310호 social-investment.kr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임팩트투자사 및 액셀러레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혁신조직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액셀러레이팅, 임팩트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700억 원 이상의 금융 지원과 경영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간 서울시를 비롯해 우리은행, 교보생명, 한국전력공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등과 소셜임팩트를 창출하는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2	 한국사회혁신금융 <small>Korea Social Innovation Finance</small>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이상진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길 20, 606호, 607호 ksifinance.com	한국사회혁신금융은 건강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혁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혁신분야에서 당사자 중심의 각종 기금을 조성 및 운영 중이며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금융 분야 정책연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위한 자금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3	 한국사회혁신금융 <small>(주)한국사회혁신금융</small>	황선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2 태범빌딩 4층 (정자동) kosif.kr	(주)한국사회혁신금융은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으로 사회적경제, 임팩트 금융, 사회책임투자,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활동으로 지속가능한사회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2015년 11월에 창립을 하여 활동해오고 있으며 2018년 7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SIB에 관심이 있는 지방정부, 개인, 단체와 조직들을 대상으로 SIB 전반에 관한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SIB 방식으로 해결할 사회문제에 대한 아이템 개발과 설계를 지원합니다.
24	 함께일하는재단 <small>(재)함께일하는재단</small>	송월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hamkke.org	함께일하는재단은 '실업극복'이라는 사명을 안고 첫발을 내딛었던 200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전념해온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연구, 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업 및 빈곤 상황에 대한 발전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	 YELLOWDOG <small>(주)옐로우독</small>	제현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6 길 21 성수이소빌딩 4층 yellowdog.kr	옐로우독은 2016년 설립된 임팩트 벤처 캐피털입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비즈니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경제 발달의 수준을 막론하고 어느 곳이나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빈부 격차, 소수자 차별, 교육 접근성 등 모두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정부와 NGO,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의 투자자 역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믿습니다. 옐로우독은 그 책임을 인식하고, 투자의 방법론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6	 HGI <small>Holistic Growth Initiative</small> HGI	남보현	서울 성동구 독성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2층 G202호 hginitiative.com	HGI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임팩트 비즈니스 회사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류는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HGI가 찾아낸 키워드는 "최적화"입니다. 이에 '데이터 중심, 최적화, 미래 대비, 포용성'의 4대 핵심가치에 기반한 임팩트 투자를 집행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비즈니스들의 임팩트 전환을 돕고자 합니다.

2020 사회적 금융 서베이

발행일	2021년 6월
발행처	사회적 금융 포럼
전화	02-2088-3288
팩스	02-2088-3299
홈페이지	www.socialfinance.kr
이메일	forum@socialfinance.kr
조사·연구 기관	(주)임팩트스퀘어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금융포럼